



리아호나 2010

지역 소식

서울 선교부 · 서울 서 선교부 통합

하나가 되어 새로운 미래로

지난 2010년 2월 6일, 십이사도 정원회의 열린 에이치 옥스 장로와 칠십인 정원회 회장단의 홀스트롬 장로,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의 최윤환 장로와 지역 칠십인인 오희근 장로, 그리고 서울 경인 지역의 모든 신권 지도자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특별한 발표가 있었다. 2010년 7월 1일부터 서울 선교부와 서울 서 선교부가 통합되고, 수원 스테이크는 3월 1일부터 대전 선교부 지역에 소속된다는 것이 바로 그 발표다.

이 같은 선교부의 통폐합은 비단 한국에서만 일어난 일이다. 일본의 히로시마 선교부 또한 7월 1일부터 다른 선교부로 통합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선교부의 통폐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선교부의 통폐합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선, 전 세계적으로 선교 사업이 급속하게 발전함에 따라 오래된 선교 지역과 새로운 선교 지역을 알맞게 조정하기 위해 진행된다. 이미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지역에서 선교부가 통폐합 된 사례가 있고, 선교사 수요가 늘어난 멕시코, 중남미, 페루, 필리핀 등에서는 새로운 선교부가 생겨났다.

또한 교회의 급속한 발전에 비례해 배출되는 선교사 수는 크게 증가되지 않기에 앞으로는 더 많이 준비된 젊은



선교부 통폐합에 따라 더 많은 한국인 선교사가 필요하게 되었다.

선교사가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 이 참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한국 출신의 선교사가 더 많이 배출되어야 할 필요성이 보다 커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선교부의 통폐합은 선교 사업의 주체가 회원이 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다. 회원이 중심이 된 가운데 전임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선교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다.

7월 1일부터 통합된 선교부를 이끌게 될 이용환 회장은 이렇게 말한다.

“지금 서울 서 선교부 선교사들은 선교 사업을 아주 열심히, 그리고 효율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침례의 물가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 선교부와 서울 선교부가 통합됨으로써 선교 사업의 효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은 한강을 남북으로 갈라서 선교사들끼리 교류를 할 수 없고, 서울 서 선교부 지역의 선교사들이 서울 도심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통합이 된다면 서울 서 선교부 선교사들도 서울 전체로

오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강릉 지방부에도 갈 수 있어 다양한 선교 경험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강원도 지역은 자연 경관이 수려할 뿐 아니라 회원들의 수가 적어서 선교사들의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선교부의 통합은 주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아들딸들이 참된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나 인종을 구별하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선교사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이 배려하고 계심을 느낍니다. 또한 저는 두 선교부가 통합되고 선교사 수가 조금 줄어들에 따라 회원들과 선교사들이 한 마음으로 더욱 열심히 봉사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 또한 믿습니다.”





3. 첫 선교사가 도착하다

‘신앙의 발자취를 찾아서’ 이번 호에는 한국 지역 헌납 후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은 선교사들과 점차 발전해 나가는 한국 교회의 모습, 그리고 한국에 온 최초의 선교사인 파웰 형제와 50주년 기념 지역 대회에서 전한 간증을 소개합니다.

선교사들이 오다

1950년대 당시의 교회 지도자들에게 한국은 매우 특별한 곳이었다. 오랜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에 신음하는 나라 한국은 그러나 자체적으로 주님의 복음이 싹튼 기적의 장소였다. 당시 한국에는 교회에서 보낸 선교사가 없었다. 교회는 한국 법률에 따라 공식적으로 조직되지도 않았다. 그러나 후기 성도 군인들과 당시 한국 지방부 회장이었던 김호직 형제는 한국을 복음의 땅으로 만들었고, 결국 헌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다음 순서는 선교사 파견이었다. 한국의 눈부신 복음 발전을 주시하고 있던 교회 본부에서도 신속하게 선교사 파견을 계획했다. 1955년 11월에 새로운 북극동 선교부 회장으로 부름 받은 폴 시 앤드러스 회장은 성별과 동시에 가능한 한 빨리 한국에 선교사를 보내야겠다는 느낌을 받았다.¹

그 후 일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여전히 불안한 정세와 열악한 환경이 문제였지만, 그러한 위험을 감수할 두 명의 젊은이를 주님께서 준비해 두셨다. 그들이 바로 돈 파웰 장로와 리처드 데튼 장로였다. 두 사람은

한국으로 부름 받기 전 일본에서 봉사하고 있었다. 이미 2년 이상 선교 사업을 한 상태였지만 새로운 부름을 기꺼이 받아들였고, 드디어 1956년 4월 20일에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게 되었다.

한편, 한국에서도 김호직 형제를 중심으로 여러 회원들이 첫 번째 전임 선교사를 맞이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김호직 형제는 선교사 숙소를 구하는 일과 그들의 입국을 돕는 일을 책임졌다. 선교사 숙소는 옛 서울 고등학교 근처로 그곳의 수리와 보수 또한 한국 회원들이 담당했다.

한국에 도착한 파웰 장로와 데튼 장로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바쁜 시간을 보내야 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선교사들을 찾았고, 그들은 전임 선교사가 전하는 복음 메시지에 경건하게 귀를 기울였다. 한국 땅에 전임 선교사가 파견된 것은 복음이 성장하는데 촉매 역할을 했다. 그때를 기점으로 수많은 회원들이 개종했다. 후기 성도 군인들과 김호직 형제라는 햇빛과 수분 위에 전임 선교사라는 영양분이 더해진 것이다. 급기야 1956년 6월 3일에는

북극동 선교부 한국 지방부 서울 지부가 조직되었다. 초대 회장은 파웰 장로였다. 또한 1956년 6월 4일에는 두 명의 새로운 선교사가 입국했다. 뉴웰 김볼 장로와 달딘 엠 앤더슨 장로가 그들이었는데 두 사람은 부산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바야흐로, 서울과 부산 두 곳에서 본격적으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한국에 온 최초의 선교사 파웰 형제의 간증(2005년 7월 31일 한국 지역 대회에서)

“..... 제가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머무른 지가 약 열흘 정도 됩니다. 저는 1956년에 한국을 떠난 이후 한국에 처음 돌아온 것입니다. 제가 여기 있는 동안 정말 주님의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그분의 손길이 한국에 닿으셨고, 이 나라와 또한 이 백성의 마음에 닿으셨습니다. 옛날에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김호직, 홍병식 형제님 등 몇 분이 저를 맞아 주셨고 육군 지프차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제가 한국에서 차량을 본 것은 육군 지프차와 육군 트럭뿐이었습니다. 그때는 세단도 없었고 고속도로도, 고층 건물도, 호텔이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이 나라는

그야말로 황폐한 나라였습니다. 저는 종종 한국에서 봉사한 첫 번째 선교사라는 말을 듣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처음 선교 사업을 한 사람은 M1 소총을 들고 헬멧을 쓴 군인들이었습니다. 저희들은 1956년 김호직 형제님과 64명의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64명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충실한 후기 성도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소총만 들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물몬경도 같이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군인 형제님들이 저와 제 동반자가 한국에서 선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 성도들을 잘 가르쳐 주시고 길을 닦아 주신 것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대단히 가혹했습니다. 그때는 전기도 없었고 온수도 목욕

시설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먹는 음식과 마시는 물에 대해 아주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인쇄된 자료도 없었고 번역된 물몬경도 없었고 어떤 인쇄 장비나 복사기도 없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영에 의해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제 다시 와서 보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압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살아 계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주

1. Korean Mission Journals, 17쪽.



- ① 1955년 북극동 선교부 회장으로 부름 받은 폴 시 앤드러스 회장 부부. 앤드러스 회장은 한국에 선교사를 보내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다.
- ② 폴 시 앤드러스 회장(뒷줄 왼쪽에서 세 번째)과 초기 선교사들
- ③ 서울 지부 창립 기념 모임에서의 한국 회원들.
- ④ 부산 앞바다에서 침례식을 마친 선교사들과 회원들. 전임 선교사가 봉사하기 시작한 후 부산에서의 선교 사업도 활기를 띠었다.
- ⑤ 한국에 도착한 초기 선교사들과 김호직 형제. 김호직 형제는 한국에 전임 선교사들이 봉사할 수 있는 터를 만들었다.



우리의 표준을 높이며

여자 장대높이뛰기 선수인 러시아의 엘레나 이신바예바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장대높이뛰기 선수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넘어야 할 바(bar)의 높이를 매일매일 높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나는 그저 평범한 선수가 되었을 것이다.” 그녀는 현재 세계 신기록 보유자이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기도 하다.

이신바예바가 눈부신 성적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향상심 때문이었다. 아래를 바라보지 않고, 끊임없이 상위의 목표에 집중했기에 그녀는 세계 신기록 보유자가 될 수 있었다.

표준을 높임

현대의 선지자들은 청소년들에게 향상심을 가질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자신의 표준을 높여 주님의 훌륭한 도구가 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리셀 벨라드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에 대한 이해와 확고한 간증을 갖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성약을 맺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영광스러운 메시지에 부합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엘 톰 페리 장로는



새로운 SMYC 공식 포스터와 복장과 외모 표준을 강조하는 포스터.

2007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표준을 높임’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고등학교 때 높이뛰기 선수로 활약했던 자신의 아들 이야기를 소개했다. 어느 날 페리 장로는 집 뒤뜰에서 연습 중인 아들을 향해 바의 높이가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다. 아들은 “1.79미터”라 대답하며 그것이 주 육상 대회에 참가할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최소한의 높이라고 덧붙였다. 그 말을 들은 페리 장로는 바를 높여볼 것을 권유했다. 아들은 “그러면 바를 떨어뜨릴 지도 몰라요.”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페리 장로는 이렇게 물었다. “바를 올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너의 가능성을 알 수

있겠니?”

페리 장로는 같은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이들은 최소한의 표준에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나은 높이뛰기 선수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비록 바가 떨어질지도 모르지만 자신이 될 수 있는 한 최고의 높이뛰기 선수가 되기 위해 바를 계속 올리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SMYC와 표준

올해 7월에 열리는 SMYC는 한국 청소년들의 표준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SMYC는 청소년들을 영적·육체적으로

발전시키고, 전임 선교사로 준비시키며, 하나님 앞에 흠 없이 설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한 모임이다. 이 모임에 초대되는 모든 청소년들은 합당하게 표준을 지켜야 한다. 그러한 표준에는 복장과 외모는 물론이고 영적이고 지적인 면에서의 표준도 포함된다. 복장과 외모는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 나오는 다음의 권고를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단정치 못한 옷차림으로는 짧은 반바지와 치마, 몸에 꼭 끼는 옷, 배를 노출시키는 윗옷, 기타 노출이 심한 복장 등이 있습니다. 청녀는 어깨를 가리는 옷을 입어야 하며 가슴이나 등이 깊이 파이거나 다른 방식으로 심히 노출된 옷을 피해야 합니다. 청남 또한 단정한 외모를 유지해야 합니다. 극단적인 형태의 의복이나 외모 또는 머리 모양을 피해야 합니다."

SMYC에서 권고하는 청소년들의 복장과 외모 표준은 전임 선교사들의 그것과 일치한다. 즉, 지금 당장 선교사로 부름을 받더라도 당당히 나설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SMYC에 참석하는 청소년들에게는 비단 복장과 외모뿐 아니라 영적이고 지적인 면에서의 높은 표준도 요구된다. 특히 청소년들이 흔히 접하게 되는 음악, 춤, 영상물 등 대중매체에 대한 표준을 강조한다.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은 신권 지도자들에게 전달된 공문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현재 사랑하는 청소년들은 세상의 많은 유혹과 싸우고 있습니다. 사탄의 방법은 날로 교묘해지고 강력해집니다. 인터넷이 사탄의 가장 효과적인 무기로 전락한 것은 이미 옛날의 일입니다. 책, 영화, 텔레비전, 그리고 언론 등의 대중 매체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의 지적처럼 요즘 유행하는 대부분의 음악은 자극적인 리듬과 저속한 가사로 우리의 영혼을 유혹하고 있다. 선정적인 춤과 영화, 그리고 인터넷과 게임 등도 예외는 아니다. SMYC에서는 청소년들이 양질의 교회 문화를 접하고, 그것을 통해 즐거움을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또한 SMYC에 참석하는 모든 청소년들이 영적이고 지적인 면의 표준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도록 권고한다.

물론 표준을 높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복장과 외모의 표준은 세상적인 시각에서는 유행에 뒤쳐진 고리타분한 모습으로 비칠지도 모른다. 영적이고 지적인 면에서의 표준도 마찬가지이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표준의 '바'를 높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SMYC의 주제인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시의 적절하다.

다양한 지원들

SMYC는 청소년들의 표준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여러 가지 지원을 할 계획이다. 먼저, 대회에 참석하는 청소년들이 갖춰야 할 표준을 소개하고 훈련하기 위해 각 스테이크별로 모임을 진행한다. 또한 각 와드 지부의 청소년 고문을 통해 꾸준히 표준에 대해 강조할

계획이다. 그리고 SMYC의 공식 웹사이트(www.lds.or.kr) 접속 후 좌측의 '강하고 담대하라' 클릭을 통해서도 대회 참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오는 5월 21일에는 특별한 모임도 준비되어 있다.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대축제'라는 이름으로 열리게 될 이 모임은 전국의 모든 청소년이 한자리에 모여 노래와 춤의 향연을 펼치게 된다. 청소년들은 각 스테이크와 지방부 별로 음악과 춤 중 한 팀을 구성해서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대축제'에서 발표하게 된다. 음악 발표는 EFY 홈페이지와 교회 청소년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는 노래와 편곡된 찬송가, 또는 창작곡도 가능하다. 단, 창작곡 발표 시에는 영을 고양시키고 건전한 가사가 들어가야 한다. 발표자 전원의 복장 및 외모도 청소년의 표준을 지켜야 한다. 춤 발표는 신체 접촉이 없는 라인댄스만 가능하다. 이 또한 EFY에서 제공하는 라인댄스를 표준으로 삼아야 하고, 그것을 응용한 창작 라인댄스도 가능하다. 참여 인원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음악과 마찬가지로 발표자 전원은 표준에 부합하는 복장과 외모를 갖춰야 한다. 배경 음악은 되도록 비트가 강하지 않은 경음악을 권장하며 노래가 포함된 경우에는 선정적인 가사는 피해야 한다.

이 모임은 SMYC 전에 열려, 모든 청소년들에게 SMYC에 참석하고자 하는 열망을 심어주고, 교회의 건전한 문화와 표준을 심어주기 위해 준비되었다. 청소년들은 이 모임을 통해 자신의 표준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배우게 될 것이다.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대축제'는 5월 21일 대전 평송 청소년 문화센터에서 열리며 교회의 모든 청소년과 청소년의 부모, 그리고 청소년 지도자가 그 참석 대상이다. ■

복지의 ² 기본원리 ABC

침례 Baptism

영적인 복지(침례를 통해 영적인 인도를 받음)

지상에서 성역을 시작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준비하시어 침례 요한을 찾아가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밖으로 나오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셨습니다.(마태복음 3:16)

침례를 받은 후에 성신이 항상 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비키 마쭈모리 자매님은 자신이 침례를 받고 물 밖으로 나왔을 때 흠뻑 젖었다는 느낌만 받았으며, 확인을 받은 후에도 기쁘기는 했지만 무언가 달라진 것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 날 열린 금식 간증 모임에서야 비로소 어떤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성신의 영향력을 느꼈다는 것을 지금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한 형제님이 일어나서 교회 회원이 되는 축복에 대해 말씀하며 간증하셨고, 저는 따뜻함이 홍수처럼 저를 덮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겨우 여덟 살이었지만 이번에는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세계 평화가 깃들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기뻐하신다는 확실한 느낌을 받았습니다.”(비키 에프 마쭈모리, “다른 사람이 영의 속삭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움”, *리아호나*, 2009년 11월호,



10쪽)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님은 이런 방식으로 경험을 얻은 전 세계 교회 회원들과 이런 느낌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정결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죄를 충분히 회개하고, 침례 의식을 통해 깨끗하게 되며, 그분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겠다는 성약을 맺고 지키는 이들에게만 올 수 있습니다.”(헨리 비 아이어링, “오 너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나서는 자들아”, *리아호나*, 2008년 11월호, 57쪽)

현세적인 복지(침례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기로 결심함)

신앙, 회개, 침례, 성신의 은사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으로 향하는 우리 여행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제자가 됩니다.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구주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단순히 더

많이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옳다고 아는 것을 끊임없이 더 많이 실천하며, 향상되어야 합니다.”(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가정에 더 부지런하고 마음을 쓰며”, *리아호나*, 2009년 11월호, 17쪽)

엘마는 물몬의 물에 모인 믿는 자들을 향해, 침례를 받는 자들은 “기꺼이 서로의 짐을 저 가볍게 하고자 하며, 참으로 또한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기꺼이 슬퍼하고, 또한 위로를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로”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모사이아서 18:9~9)

현재의 선지자이신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엘마의 훈계를 따르는 것을 포함하여 믿는 자들의 모범이 됩니다. 최근에 그분은 모든 후기 성도들에게 한 과제를 주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관심과 격려, 도움과 위안, 친절이 필요한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가족이나 친구일 수도, 아니면 그냥 아는 사람이거나 전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봉사하고 복돋워줘야 한다는 명을 받고 이 지상에 있는 주님의 도구입니다. 그분은 우리 각자가 그렇게하기를 기대하십니다.”(토마스 에스 몬슨, “오늘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했나?”, *리아호나*, 2009년 11월호, 84쪽)

영원한 복지(침례를 통한 영원한 가족)

실제로 침례 의식을 집행하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그 결과는 영원합니다. 구주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침례의 중대함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한복음 3:5)

모든 사람은 침례와 침례를 통해 오는 영원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별로 침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가족은 이 의식을 통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님은 우흐트도르프 자매님과 그녀 가족의 개종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난 후, 카르멘의 어머니 역시 지상에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딸과 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너희들이 가는 천국에 가고 싶구나.’ 그녀는 70대 중반에 침례의 물에 들어섰으며 교회 회원이 되었습니다.”(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우리 선조의 신앙”, *리아호나*, 2008년 5월호, 68쪽)

이런 축복들은 산 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일본에서 복음을 받아들였으며 자신의 집안에서 유일한 교회 회원이 된 스물한 살 청년에 대해 데이비드 이 소렌슨 장로님은 이야기 하신 적이 있습니다. 침례를 받은 후, 그는 가족 역사 사업을 완수하고 그의 할아버지를 위한 대리 침례를 받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젊은이는 침례탕에서 나오면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제 가족 중에 유일한 교회 회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느끼며 증거도 받았습니다.’ 그는 이러한 의식을 받음으로써 가족들과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었고, 그의 생활에서 가족과 단합을 새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데이비드 이 소렌슨, “소규모 성전-많은 축복”, *리아호나*, 1999년 1월호, 64쪽)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헤아림을 받는 것은 정말 훌륭한 특권입니다. 침례를 받음으로써, 성신은 우리가 가장 바쁘고 힘든 시기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로 인도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어려운 일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이상의 일을 하도록 강요받지는 않습니다.

침례를 받은 후에 해야 할 일과 충실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에 대해 니파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소망의 완전한 밝은 빛과 하나님과 만인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을 지니고 힘써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느니라. 그런즉 만일 너희가 힘써 앞으로 나아가되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며 끝까지 견딜진대, 보라, 이같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 하시느니라.”(니파이후서 31:20) ■

두 곳의 교회 사무실 장소 이전

한 국 서울 성전 내에 자리 잡고 있던 ‘가족 역사부’와 ‘출판물 및 성전복 판매장’이 성전 주차장 확장 공사 관계로 그 위치를 이전한다.

가족 역사부

가족 역사부는 기존의 자리에서 성전 담장 바로 옆에 위치한 건물로 이전하게 되었다. 새로운 사무실은 2010년 4월 1일부터 이용 가능하며, 위치 이전에 따른 문의는 무료 전화(003-0813-1596)나 이메일 (koreansupport@familysearch.org)로

할 수 있다.

출판물 및 성전복 판매장

출판물 및 성전복 판매장은 성전 바로 옆에 있는 신촌 와드 1층으로 자리를 옮겼다. 출판물 및 성전복 판매장은 이번 이전을 통해 회원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내부를 새로 꾸몄다. 출판물 및 성전복 판매장은 3월 24일부터 새로운 장소에서 업무를 하고 있다.

두 사무실의 이전 위치는 오른쪽 약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010년 4월호

한국 성도의 소리

“특별한 경전 읽기”



작년은 많은 사람들에게 재정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힘든 한 해였다. 내가 속한 와드의 회원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였다. 삶에 지쳐서인지 신앙과 간증도 열어진 듯했고 와드 분위기도 조금은 저하되었다. 그래서일까, 자주 보던 얼굴들이 하나 둘씩 와드에서 사라

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에 가을이 되고 감독단이 개편되었다. 새로운 감독단은 회원들에게 와드 경전 읽기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와드 경전 읽기란 와드 회원 전체가 마치 세미나리를 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똑같은 구절을 읽고, 표시해 나가는 획기적인 프로그램이었다. 감독단은 그날에 읽어야 할 구절이 표시된 달력을 제작해서 모든 회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우리 와드 회원들이 도전할 경전은 교리와 성약이었다. 회원들은 감독단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경전 읽기에 들어갔다. 나도 새로운 마음으로 교리와 성약을 펼쳐들었다. 하루하루 그날에 해당되는 구절을 읽고, 그것을 표시할 때마다 주님의 영은 물론이고 나와 같은 시간에 사랑하는 와드 회원들이 똑같은 구절을 읽고 있으리라는 벅찬 감동도 느낄 수 있었다. 누군가는 달력에다가 사인을 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동그라미를 치거나 도장을 찍거나, 혹은 지장을 찍기도 했다. 표시하는 방법은 제각각이었지만 그 성취감은 똑같았다. 경전 읽기 프로그램을 하면서 내 생활이 변하기 시작했다. 회원들도 변하기 시작했다. 와드에는 금세 활기가 돌았다. 많은 회원들이 이 프로그램에 대해 간증을 나누었다. 말씀에서 자신이 읽었던 구절을 인용하기도 했다. 교리와 성약의 마지막 구절을 읽은 날은 성탄절 이브였다. 훌륭히 프로그램을 마친 회원들에게는 감독단이 준비한 작은 선물이 전달되었다. 감독단은 간증을 나누면서 끝내 눈물을 보였다. 열심히 따라 준 사랑하는 회원들에게 보내는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렇게 우리 와드는 특별한 성탄절, 특별한 한 해를 보냈다. 이제 우리는 2010년을 맞이해 구약을 읽고 있다. 새로운 달력이 만들어졌고, 회원들은 또 다시 프로그램에 동참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와드 회원들은 같은 날 같은 경전을 읽고 있을 것이다. 그 생각을 할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진다. ■

류기인 형제(서울 영동 스테이크)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국내 2명/해외 1명



김원성 장로
울산 지방부
방어진 지부
대전 선교부



황지애 자매
서울 북 스테이크
원당 와드
캐나다 밴쿠버
선교부



서예지 자매
서울 강서 스테이크
개봉 와드
대전 선교부

역원 및 단위 조직 명칭 변경

강릉 지방부

속초 지부 지부 회장: Derek Chance Eckman(전임: Tyson Kade Mclaws)

부산 스테이크

대신 지부 지부 회장: 진민용(전임: 김만수)

순천 지방부

광양 지부 지부 회장: 안태훈(전임: 송두환)
여수 지부 지부 회장: 황인철(전임: 김태완)

인천 스테이크

만수 와드 감독: 김우식(전임: 한규태)

청주 스테이크

청주 스테이크 회장: 정진용(전임: 정태걸)
스테이크 회장단 제1보좌: 정채영(전임: 정진용)
스테이크 회장단 제2보좌: 이우철(전임: 이정은)

기사를 기다립니다

리아호나 지역 소식에서는 다음의 기사를 모집 중입니다.

1. 한국 성도의 소리
2. 함께 나누는 경전 구절
3. 침례의 물가에서

기사를 보내실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소: 서울시 중구 신당 6동 103-1번지 3층 한국 관리
본부 자재관리부 전건우 형제 앞. 우편번호)100-456
전화 번호: 02-2232-1441 (내선 564)
이메일: aron1979@hanmail.net (전건우 형제)